

##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심연수<sup>1</sup>, 최우양<sup>2\*</sup>

<sup>1</sup>신흥대학 치위생과, <sup>2</sup>강릉영동대학 치위생학과

### Perceptual Gap Analysis on Business satisfaction between Dentist and Dental Hygienist

Youn Su Shim<sup>1</sup> and Woo Yang Choi<sup>2\*</sup>

<sup>1</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eung college

<sup>2</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neung Yeongdo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을 통하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을 높이는 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치과의사 114명과 치과위생사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비교를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위생사가 높게 인식한 것은 치과의사의 비난 경험에 따른 유무와 치과위생사의 비난 경험에 따른 유무로 분석되었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에 비해 치과의사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중요성,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상호신뢰 정도에서는 치과위생사에 비하여 치과의사가 모두 높게 인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상호신뢰가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치과의사의 업무만족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정도가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협력적 접근 및 상호신뢰와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상호간의 잘못된 점을 험뜯고 상처주기 보다는 상호신뢰의 증가와 협력적 접근을 위한 배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연구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dentist and dental hygienist of Interprofessional cooperation,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dentist and dental hygienist satisfaction with their cooper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a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from 6 April, 2009 to 27 April 2009.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12.0 Program to determine the perception of dentist and dental hygienist of Interprofessional cooperation and predicting factors on their satisfaction. The result shows that dental hygienist is recognized that degree of depression which is caused by dentist's condemnation and by dental hygienist's condemnation rather than dentist. On the other hands, dentist is recognized that the importance of interprofessional cooperation and mutual trust between dentist and dental hygienist.

**Key Words** : Business satisfaction, Dentist, Dental hygienist

### 1. 서론

병원 조직에서 직원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은 단순히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료행위

의 필수적인 요소이다[16]. 이러한 인력간 업무협력은 치과의료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치과진료는 치과의사 단독으로 치료를 진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치과진료는 four hands dentistry 혹은 six hand dentistry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치과위생사가 한두 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교신저자 : 최우양(woo-yang@hanmail.net)

접수일 10년 09월 10일

수정일 11년 01월 20일

계재확정일 11년 03월 10일

하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역할 중 예방이나 구강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요즘은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서 치과위생사 중에서도 환자의 상담 및 환자응대 등 다양한 위치에서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9]. 이것은 진료실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영부문까지 치과위생사의 업무확장으로 치과의료서비스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상호협력을 해야 할 업무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관련 연구인 이성숙[10]의 연구와 신명숙[6]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의사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로 직무 수행 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그 외 전문직으로서의 치과의사와의 역할갈등과 치과의사의 지나친 권위주의적 자세, 치과의사의 언행불일치, 치과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과 같은 비협력적인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정재연[13]의 연구와 강재경[1]의 연구에서는 치과의사와의 갈등, 치과의사와의 불편한 인간관계, 치과의사의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원인이 가장 큰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해경[12]의 연구와 장운희[13]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와의 원활하지 않은 상호관계의 일부를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최정희, 유미선[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에 대한 인식비교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업무협력을 높이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치과환자들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발전 및 개선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으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직업에 따라 즉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차이가 있다.
- 둘째, 병원규모 즉 종합(대학)병원과 병·의원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 셋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업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무작위 추출된 서울·경기 지역의 종합병원(대학병원포함)5곳과 치과병원·의원 5곳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고, 동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자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300부, 치과병·의원 120부 총 420부 중 30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4부는 기재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응답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한 303부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비교는 T-test를 시행하였으며,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모든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하였으나,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의 인식을 긍정적, 부정적 응답으로 구분하기 위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그렇다”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아니다”라고 재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3 측정도구의 검증

본 조사항목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alpha$ )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업무협력’에 대한 설문 문항은 6개의 항문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alpha$ )계수값이 .80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alpha$ )계수값은 .70이상을 적합하다고 본다[20].

[표 1]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변수명	항목수	Cronbach's Alpha( $\alpha$ )계수
업무협력	6	.805

## 3. 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는 총 303명으로 치과의사 37.6%, 치과위생사 62.4%로 치과위생사의 비율이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직업	치과의사	114	37.6
	치과위생사	189	62.4
병원유형	종합병원 (대학병원포함)	186	61.4
	치과병·의원	117	38.6
		303	100.0

### 3.2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대상자들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의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는 치과의사가 3.68로 치과위생사의 3.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군 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1). 치과의사의 비난의 경험유무에 있어서 치과위생사가 3.56으로 치과의사의 2.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치과위생사의 비난 경험유무에 대해서도 치과위생사가 2.98로 치과의사의 2.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1).

[표 3] 직업에 따른 업무협력 인식 비교

구분	치과의사 (N=114) M±SD	치과위생사 (N=189) M±SD	p-Value
업무 만족도**	3.68±0.86	3.22± 0.82	0.000
치과의사의 비난의 경험유무**	2.96± 1.03	3.56± 1.09	0.000
치과위생사의 비난의 경험유무**	2.51± 1.02	2.98± 1.05	0.000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3.55± 0.87	3.36± 0.77	0.046
동료간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3.65± 0.75	3.59± 0.81	0.546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상호신뢰를 하고 있는지*	3.51± 0.80	3.31± 0.85	0.042

\*p<0.05, \*\*p<0.001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치과의사가 3.55로 치과위생사의 3.3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였다(p<0.05). 동료간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서도 치과의사가 3.65로 치과위생사의 3.59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546).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상호신뢰를 하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치과의사가 3.51로 치과위생사의 3.31보다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다(p<0.05).

### 3.3 병원유형에 따른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대상자들의 병원유형에 따른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종합(대학)병원과 치과병·의원에 있어서 치과위생사의 비난의 경험유무에 있어서는 종합(대학)병원에서 2.94로 치과병·의원의 2.6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있어서는 치과병·의원이 3.65로 종합(대학)병원의 3.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1), 동료 간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지에서도 치과병·의원이 3.79로 종합(대학)병원의 3.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1).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상호신뢰를 하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치과병·의원이 3.54로 종합(대학)병원의 3.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5).

[표 4] 병원유형에 따른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종합(대학)병원 (N=186) M±SD	병·의원 (N=117) M±SD	p-Value
업무 만족도	3.38±0.84	3.42± 0.90	0.677
치과의사의 비난의 경험유무	3.31± 1.04	3.36± 1.20	0.718
치과위생사의 비난의 경험유무*	2.92± 1.04	2.61± 1.06	0.011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3.30± 0.79	3.65± 0.80	0.001
동료간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	3.51± 0.82	3.79±0.71	0.002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상호신뢰를 하고 있는지*	3.28± 0.84	3.54± 0.80	0.010

\*p<0.05, \*\*p<0.01

### 3.4 직업별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의사의 비난에 따른 우울정도, 치과위생사의 비난에 따른 우울정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

동료간의 업무협력,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상호신뢰를 독립변수로 두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12.0%로 나타났고, 조사된 독립변수 중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상호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작용하였다[표 5].

또한, 치과의사의 업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19.0%로 나타났고, 조사된 독립변수 중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6].

[표 5]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P	R <sup>2</sup>
상호신뢰	0.271	0.281	0.077	0.001	0.120

\*p<0.05

[표 6] 치과의사의 업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P	R <sup>2</sup>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	0.357	0.364	0.113	0.002	0.190

\*p<0.05

#### 4. 결론

보건의료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의료전문가들의 팀 구성을 통한 업무수행이 보편화되어 있고[10], 의료의 질과 효율성에도 의료 인력간의 협력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 [4]. 특히,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의료서비스의 제공의 효율성 및 질적 향상과 이로 인한 환자의 만족도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팀의 기능적인 역할분담으로 향상될 수 있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의 협력과 신뢰는 완전한 치과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 최선의 치과의료서비스의 결과를 확신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간의 업무만족 차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과를 논

의하고자 한다.

치과의사의 비난의 경험유무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인식 변화가 불가피하다. 치과의사의 비난의 경험유무를 조사한 결과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에 대해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의사와 간호사의 연구이지만, 김종래[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는 치과의사의 비인간적 대우, 권위주의적 자세, 치과의사의 언행 불일치로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만족을 감소시켜 이직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1, 11, 14, 16] 치과위생사들은 권위적인 치과의사보다는 인간적인 관계 지향적[7]인 유형의 치과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치과위생사의 비난의 경험 유무와 동료 간의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김종래[4]의 연구와 오정숙 [8]의 연구에 따르면 동료와의 상호협력적 관계가 긍정적 인 면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반면, 엄미란 [7]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끼리의 동료관계 만족도가 높아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이직과 동료에 대한 상관관계는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보다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요인에서 상사와의 우호적인 관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8], 최은미, 송운신, 이선희[15]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협조적인 모습이 일반인에게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협력의 필요와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상호신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권선화[2]의 연구에서는 치과에서는 팀으로 구성되어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가족 같은 구성원으로 서로를 신뢰하여 병원을 가정처럼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하여야 환자 역시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하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신뢰관계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야하고, 치과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다[21]. 그러므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갈등관계가 깊어지고 지속되어 신뢰가 깨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즉, 직업별 업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결과에서 보여 지 듯 치과위생사는 상호신뢰를, 치과의사는 업무협력적

인 부분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업무만족이 낮아질 수 있어 구성원이 조직을 이탈하게 됨으로서 양질의 인력확보가 위협받게 되며, 이들의 모집·선발·훈련에 따른 막대한 비용의 손실[19]과 치과의료기관의 운영이나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14]. 즉, 환자들이 날이 갈수록 고급·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서로를 배려하여 신뢰를 쌓아 업무만족을 높여 환자에게 보다 더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만족도도 높이고, 더 나아가 구강보건발전에도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유형에 따른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 비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비난의 경험 유무를 제외하고 직무만족도를 비롯하여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치과병·의원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에 송윤신[5]의 연구에서는 직장형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치과원의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관계에서 종합(대학)병원보다 치과병·의원이 높다는 권순복[3]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치과의사가 고용주로 손발을 맞춰야 하는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종합(대학)병원에 비하여 규모나 인력수가 적어 가족적인 형태와 분위기 때문에 종합(대학)병원보다 상호간의 신뢰와 배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협력적 접근 및 상호신뢰와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상호간의 잘못된 점을 헐뜯고 상처주기 보다는 상호신뢰의 증가와 협력적 접근을 위한 배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연구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재경, "치과위생사의 직업의식 수준에 관한 연구", 치과연구, 제45권 4호, pp. 47-57, 1999.
- [2] 권선화, "병원 의료서비스 질이 고객만족, 재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 권순복, "치과위생사 근무지별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4] 김종래, "병동에서의 전문인력간 업무협력에 대한 의사 및 간호사의 인식", 한양대학교 행정·자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5] 송윤신,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6] 신명숙,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성과의 관계 연구",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제20권 1호, pp.101-108, 2002.
- [7] 엄미란, "치과원장의 리더십 유형과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8] 오정숙, "한국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재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9] 오진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이성숙,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5권 1호, pp.151-159, 1998.
- [11] 이철우, "치과의사의 직업의식과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12] 임혜경,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3] 장윤희, "치과위생사 이직 및 수명연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4] 정재연, "치과위생사의 이직 및 직무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치과연구, 제143권 2호, pp. 47-56, 1999.
- [15] 최은미, 송윤신, 이선희, "서울-경기지역 주민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조사연구", 경북논총 제8권, pp. 399-414, 2004.
- [16] 최은영,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조직애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7] 최정희, 유미선, "일부지역 치과위생사의 이직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위생과학회 제11권 1호, pp.115-122, 2005.
- [18] 한금선, "환자-의료인 신뢰를 높이는 의사소통", 간협신보. pp4, 2007.
- [19] 황의록, 조간제, 박종주, "직장선택 준거와 전직원인에 관한 연구", 행동과학연구, 제8 10호, pp.4, 1975.
- [20] Hair, J-F, Black, W-C, Babin, B-J, Anderson, R-E, & Tatham, R.L,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2006.
- [21] Ulricks J.M et al, "Dental hygienists utilization of periodontal assessment skills and perceived collaboration with dentist employer", The Ohio State University, JDH/Americ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67(1): 22-29, 1993.

**심 연 수**(Youn-Soo Shim)

[정회원]



- 2004년 8월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의료경영학 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치과생체재료공학(치의학 박사)
- 2011년 1월 ~ 현재 : 신홍대학 치위생과 겸임교수, (주) 이레매 일건강 근무

<관심분야>  
치과재료학, 예방치학

---

**최 우 양**(Wooo-Yang Choi)

[정회원]



- 2009년 8월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의료행정학과(행정학 석사)
- 2011년 1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과정 중)
- 2011년 1월 ~ 현재 : 강릉영동대학 치위생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예방치학, 교육학